



박동준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현대 차가 형식에 치우쳐 수행정신을 잃고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박물관에서는 차 시음회가 열려 참석대중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전통차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1월 15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황해문명포럼 청년들은 차문화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의 스님 和而不同 정신을 차에서 배우자”

〈화이부동 : 남과 잘 어울리나 자신의 중심을 잃지않음〉

## 동아시아차문화학, ‘한국의 전통 차 확산’ 토론회

“한국차 중흥을 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차인들이 초창기 일컫은 우리 차 문화를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 박권홍 한국차인연합회 회장

“초의 스님이 억불승유 시대에 차를 매개체로 유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어울린 것은 차가 가진 문화적 기능때문입니다. 초의 스님의 화이부동 정신이 바로 차가 지닌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하얀 머리의 노신사에서부터, 전통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까지 11월 15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득했다. 이들 300여 명의 눈과 귀는 토론회장에 나선 젊은 청년들에게로 향해 있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를 비롯한 한국 전통차 관계자들은 15일 한국의 차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차인들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차인들은 “최근 한국 사회에 커피 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전통 차는 소외되고 있다”며 “1300년 전 차 역사가 이어져 온 만큼 차를 즐겨 마시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한국차라고 하면 빠지지않는 대표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다. 사실 차인들이 갖고 있는 차인으로서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런 까닭에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차문화 발전을 논의하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토론회에는 한국차인연합회를 비롯해,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명원문화재단, 반야로차도문화원, 오설록 등 관련단체를 비롯해 여연 스님, 도범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 젊은세대에 차 보급 관심 필요

이날 행사는 총 4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부 청년, 차를 묻다’에서는 ‘차는 왜 마실까’라는 주제로 젊은세대와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패널로는 민간동호회단체 황해문명포럼 김용재대표, 서울대 학생 명원 씨, 이우진 세종문화회관 음향연출, 김희수 공군장교, 차동호까페 차낙골 김미영 대표 등이 나섰다. 토론회에서 이들은 회사 생활, 학업 등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차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며,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먼저 이들 중 일부는 사찰에서의 차를 마신 것이 차인이 된 계기라고 밝혔다. 명원 씨는 먼저 “서울대 고시생활을 사찰에서 했는데 그때 스님들이 주신 차를 나와서도 즐겨마시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우진 씨도 “선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차를 마시게 됐는데, 차를 마시면 옷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좋아 이후 자주 마시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인스턴트 커피에 대응해 현대인들이 보다 차에 가까워 질 수 있는 다양한 차가 개발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김희수 씨는 “회의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차 한잔 하실래요’ 인데, 보통 커피를 마신다”며 “불



미국 보스턴 문수사 주지 도범 스님

포럼 패널들  
“사찰서 맛 본 차, 차세계로 이끌어”

박동선  
“한국전통 알리는데 차만한 것 없어”

박동준  
“차 안의 수행정신, 성찰의미 살피야”



박동선 한국차인연합회 이사장

랜딩 차 등 현대인들이 차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씨도 “일반인들도 차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중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권홍 한국차인연합회 회장은 “한국차 중흥을 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이 필요하다. 차인연합회 탄생 초창기에 여러 젊은 사람들이 원력을 세운 것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은 “초의 스님이 억불승유시대 펼친 화이부동의 정신이 바로 차의 정신”이라며 “차는 음료로서도 기능도 있지만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 다음 세대의 성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문화 알리는데 전통차 으뜸

2부 ‘원로, 차를 말하다’ 행사에서는 한국차문화운동을 주도한 원로들이 나서 초창기 과정을 순회했다. 원로로는 박동선 한국차인연합회이사장, 도범 스님(미국 보스턴 문수사), 정승연 다례원 원장이 나섰다. 특히 미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실업가 박동선 회장은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차문화가 으뜸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선 회장은 “미국에서 정치계와 어울릴 당시, 차의 역할이 컸다.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차가 크게 기여했다”며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 낯날 한국인의 정신적 단결을 이끄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범 스님은 “70년대 차문화 운동이 태동되기까지는 한국전통 문화 육성에 관심을 가졌던 박정희 대통령, 명원 김미희 여사, 박동선 회장 등 수많은

이들의 기여가 있었다”며 “당시에는 마실차도 없고 차 그릇도 없었다. 한국전통다시를 재현하기 위해 골동품 가게마다 찾아다니기도 했으며, 해인사 사하촌에서 귀사발을 구해 차를 대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우리 차문화 형식에 얽매어 정신 잃어가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박동준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21세기 전통 차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에서 박 소장은 “현대사회에서 뜨거운 온도에서 차를 달이는 전통이 약해지며 다구들도 급조되는 등 간편화되었다”며 박 소장은 “뜨겁게 마셨던 차의 온도가 낮아졌으며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수구(물 식힘 그릇)가 출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소장은 “현대 차 문화 운동기에 형성된 다례는 차에 대한 절차와 교육의 품이 필요했기에 형식을 우선시했다”며 “이로 인해 차의 원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차문화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며 효능과 수행정신을 담은 모습이 퇴색됐다”고 말했다.

박 소장이 이어 차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국립 차문화 연구기관 설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차학과 신설 △공공기관 주요음료로 차활용 의무화 △학교 급식 등에 차 활용 △다례 확대를 통한 시민의식 고취 △지리산과 보성지역 전통차문화특구 지정 등을 제시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토론회장 한켠에서는 전통 다기에 우려낸 다양한 차가 제공되기도 했다. 한국의 다인들이 모여 발전을 논의한 자리. 토론회는 한마디로 ‘차의 향기 속에 우리 문화 속에 흠뻑 빠져 지내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노덕현 기자

##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 열린선원의 선원장 무상법현스님의 전법 수상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3판 인쇄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디든 불러주시면 초청법회 및 싸인회를 통해 전법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사찰과 단체(회사, 기관, 학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선원의 일정이 정해져 있어 가능한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 무상법현 일정 : 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오후, 2,3,4주 일요일 오전, 음력 18일은 법회를 하고 있어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상기 외의 시간과 초하루, 보름, 관음재일에는 언제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  
3판발행

“ 전국 유명서점과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 열린선원 무상 법현 합장**

주소 : 서울 은평구 연서로 17길 18-6 205호 / 연락처 02)386-4755  
이메일 opentemple@hanmail.net / 스님 직통 010-5245-0370

수행도, 전법도 저잣거리에서

법현 스님

로복빈스

※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을 50권 이상 주문하실 분은 법현스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